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조 영 아[†]

연세대학교 연세상담센터

전 우 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 연구는 근래 들어서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결혼 경험이 있는 11명의 여성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남한 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적 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 내용을 주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탈북 여성들은 남녀간의 역할과 지위가 변화에 따른 갈등 중혼이나 동거로 인한 갈등, 남한 남성과의 결혼 생활에서 비롯되는 갈등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및 영 유아 자녀 양육, 직업훈련 및 직장생활, 건강 영역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이나 두고 온 가족의 지원 및 남한 입국 문제,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과 심리적 위축감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면담내용에 근거하여 탈북 여성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여성 탈북자, 남한 생활 적응

[†] 교신저자 : 조영아, 연세대학교 연세상담센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E-mail : life7777@yonsei.ac.kr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는 1998년 98명에서 매년 2배 정도씩 증가하여 2004년 6월까지 5170명에 이르렀고, 2003년 한 해 동안만도 1281명의 탈북자가 입국, 정착하였다(통일부, 2004). 그러나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많은 북한 이탈주민들은 사회 적응 및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 교육, 문화적응, 정신 신체적 건강, 인간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은 쉽지 않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있다.

최근 탈북 입국자들의 특성은 연령과 계층면에서 다양화되고 있다. 가족동반 및 기 입국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잔류가족이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도에는 전체 입국자의 63%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 여성들의 남한사회 적응 양상과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탈북 가정의 가족 관계 변화나 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기영과 성향숙(2001)은 남한 사회 정착 후 탈북 가정의 가족 관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탈북 가정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가정이 남한 정착 후 입국 전에 비해 의사소통, 결속력, 갈등이나 폭력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으나 가족권력관계는 더 나빠졌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관계에 비해서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지 못했고 가족 결속력 측면에서는 남한 정착 2년 반이 지나면서 긍정적 인식이 감소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잠재적인 가족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의 갈등 및 폭력적인 관계가

남한에 오기 전에 비해 온 후에 완화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의사소통 내용도 더 양호해진 것으로 인식했던 반면에 남성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아서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엘리(1999)의 연구에서는 탈북 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경제적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부족과 이로 인해 직업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경제적 곤란이 컸으며 안정된 직장도 없고 취직이 잘되지 않는 남편의 상황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부부간의 성격차이나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종교나 옷차림, 남녀관계에서의 역할과 태도와 관련하여 자녀와 가치관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자녀와의 갈등, 자녀 교육의 어려움은 탈북 가정을 연구한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혜경과 김영란(2001)은 탈북 여성들의 적응문제를 다룬 연구에서 탈북 여성들이 남한 사회의 조기교육 분위기에 대해 당혹감과 이질감을 느끼며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녀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상황을 적절히 도와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경험하는 등 부모로서의 자녀들을 위한 심리적 역할수행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한 안연진(2002)과 김영수(2000)의 연구에서도 탈북 가정들이 청소년 자녀들의 행동과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와의 단절감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가정의 부모들은 가족주의적 사고방식, 가족 내에서 성 역할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된 인식,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효 인식으로 인해 자녀들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였다. 즉, 부모 자녀

사이의 문화적 괴리감, 공감대 부재, 경직된 의사소통 등이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박미석, 이종남, 1999).

탈북 여성들은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뿐 만 아니라 탈북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외상이나 북한 내 잔여가족과 관련된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탈북 여성들은 두고 온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죄책감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시하는 문항에 나타나는 정서적 어려움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 김영란, 2001), 남한 입국 전에 중국이나(김태현, 노치형, 2003;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2000), 제 3국에서 수많은 인권유린과 심리적 외상의 스트레스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롭(2003)은 탈북 여성에 관한 연구에서 탈북 여성들이 난민 과정에서 성적인 인권침해경험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탈북 여성들은 조직적으로 인신매매되어 강제혼을 당하거나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거나 피난과정에서 위협적인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폭력적 경험들이 북한 남성들의 자신의 뜻과 다르게 북한 남성들의 폭력적 구애를 쉽게 받아들이는 행동, 남한 남성과의 결혼을 두려워하여 조기에 결혼 상대자를 결정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나 강간 등의 여성들만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이 현재의 남한 생활 적응에 남성과 구별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심리적 증상의 표현도 남녀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노대균(2001)은 국내 거주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문화적 적응 면에서는 남성이, 심리적 적응 면에서는 여성이 유의하게 양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화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MP로 입국 초기 탈북주민의 정신건강을 측정한 김현와와 전명남(2003)의 연구에서는 여성은 건강염려증 척도와 남성-여성 특성 척도에서, 남성은 우울, 반사회성, 강박증, 내향성 척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여성은 신체증상에 대한 집착이나 불안이 높고 전통적인 여성적 역할과 상반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비해, 남성은 자기비하나 자기비판과 같은 자기 평가가 엄격하고 사고의 경직성과 강박적 성향이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사회적인 외현화 증상으로 표현하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불편함을 보다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탈북자로서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또한 정착이후에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적응 문제가, 신체적, 심리적 적응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은 탈북 주민 전체의 적응양상과 정착생활 과정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전우택, 윤덕용, 2001; 전우택, 2000).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탈북 여성에 대한 연구들도 탈북과정에서의 경험이나 생활실태를 다루거나 여성 탈북자들의 적응문제를 전체 가족 관계의 시각에서 혹은 가족 내에 한정에서 다루어져 이러한 적응상의 문제가 성별에 관계없이 탈북 가정 전체가 겪는 문제인지 아니면 여성 특유의 문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김영수, 2000; 안연진, 2002; 이기영, 성향숙, 2001). 여성들만을 한정된 연구에서도 여성들의 적응문제는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나 위치, 변화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지거나(이혜경, 김영란, 2001), 성문제와 관련된 난민경험, 취업문제에 한정에서 여성의 문제가 이해되어(이새롭, 2003), 여성 탈북자를 한 인간의

정신, 신체,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전체적 시각으로 조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탈북주민과 비교할 수 있는 난민 연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은 신체적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체적 질환이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많으며 (Hermansson et al., 2002; Hinton et al., 1998) 때로는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간의 차이를 구분하기도 어렵다. 또한 신체적, 심리적 질환은 경제적인 안정에 영향을 미쳐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가져오곤 하였다(Bruce, 2003). 즉, 난민과 유사한 탈북 주민에게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인 문제는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 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전우택, 2000).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 여성에 국한하여 이들의 적응문제를 알아보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들의 적응문제를 단지 가족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전반적인 탈북 여성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이것을 통해 여성으로서 적응상의 특징과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이를 통해서 탈북 여성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한에 거주하는 11명의 탈북 여성들이다. 연령은 28세 이상 55세 이하로, 평균 연령은 38.3세였다. 참여자 모두 결혼 경험이 있다. 그중 6명은 남한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2명은 북한에 남편이 거주하고 있다. 한명은 남편이 북한에서

표 1. 면담 참여자의 인적사항

사례 번호	나이	입국년도	현재 직업	북한에서의 직업	남한 동거 가족
1	35	2000	대학생	군인	없음
2	34	2001	주부, 가내 생산직	경리	남편, 자녀 1명
3	28	2001	주부, 회사원(휴직중)	사무원	남편, 자녀 1명
4	39	1998	주부, 대학원생	연구원	자녀 1명
5	50	2001	주부	노동자	남편, 자녀 2명
6	37	2001	주부, 교사	교사	남편, 자녀 2명
7	55	2001	주부, 학원수강	노동자	자녀 3명
8	32	2000	주부, 학원수강	사무원	자녀 1명
9	41	1998	주부, 공동 사업장 운영	재단사	남편, 자녀 1명
10	30	1998	주부, 책 대여점 운영	사무원	남편, 자녀 1명
11	41	2000	주부, 학원수강	경리	자녀 2명

사망하였고, 한명은 남한에 남편이 거주하기는 하나 동거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른 한명은 이혼 경험이 있다. 모두 하나 이상의 자녀를 두었으며 한명은 자녀가 남편과 함께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 학생이 2명, 직업을 갖지 않은 전업주부 2명, 고정적인 직장이 있는 여성이 4명, 학원수강 중인 여성이 3명이었다. 남한에 거주한지 1년 이상, 6년 이하인 사람들로 이중 1999년 이후 남한에 입국한 사람이 8명이었다.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서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양상을 알아보고자 했다. 면담은 2003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총 3명의 연구자가 탈북 여성들을 만나 직접 면담하였다. 면담자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탈북자들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면담에 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탈북자들을 탈북자 관련 단체와 사람들로 부터 소개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을 면담하였다. 그리고 면담을 한 탈북자들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소개하는 탈북자들을 소개받아 그들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탈북자 한 명당 걸린 면담시간은 일반적으로 약 2시간 정도였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길어졌다. 면담의 내용은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적응상의 어려움과 이에 관련된 자신들의 경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면담의 질문 내용은 크게 부부

관계, 자녀교육 및 양육, 직업 및 경제활동, 사회 문화적 측면, 심리 및 신체적 영역의 다섯 가지 영역이었다. 반 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택하여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질문의 내용을 따라 진행을 하였으나 개개인의 상황과 특징에 따라 관심 분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격려했다. 참여자의 자유로운 설명에 이어 추가적인 질문이 이어지는 형태로 이어졌고 특히 전체 면담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면담 중에 중요한 내용이나 참여자의 간단한 신상명세, 비언어적 태도나 분위기 등을 기록하였다. 면담 녹음 테이프는 다음 면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면담에 참여했던 한명의 연구자가 일차 전사하였고 또 다른 연구자가 테이프를 들으면서 전사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분석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문제의 각 영역과 관련되는 면접 자료를 정리하고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하여 원자료를 축약하는 코딩을 실시한 후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미한 주제를 발견하는 주제분석 방법 (Patton, 2002)을 적용하였다. 우선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내용을 전사하였던 2명의 연구자는 각자 면접 자료를 읽고 분석하였으며 그 이후에 서로의 내용을 비교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질문 영역별로 자료를 코딩할 수 있는 통일된 코드북을 만들었다. 이 코드북을 기초로 하여 개별 면담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재코딩하

였고 이 재코딩한 결과를 근거로 만든 최종적인 코드북의 각 항목에 모든 사례의 해당내용을 다 적었다. 그 후 각 항목의 내용 간에 유사한 내용끼리 묶고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반복 작업을 통해서 면담 자료의 각 주제별로 유사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결 과

부부문제

남녀 역할과 지위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부부불화

탈북 가정 중에는 부부가 어렵게 탈북에 성공하여 남한에 정착하게 되었는데도 남한 생활에서 부부간에 잦은 불화와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꽤 있다. 남한에 비해서 생활환경이나 여건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북한에서도 유지되었던 부부관계가 남한에 와서 흔들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부 역할과 지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여성에 대해 유교적이고 남존여비의 태도가 강한 사회로 탈북 여성들은 북한 출신 남편들이 남한의 남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아내에게는 순종적이길 기대한다고 느낀다. 북한에서는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탈북 여성들도 대부분 중국을 거쳐서 남한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한 남성, 중국 남성과 자신의 남편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탈북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여성을 무시하는 듯한 남편의 태도에 불만을

품게 된다. 또한 남한 사회에서 남편은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만큼 해내지 못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적응하여 경제적으로 더 이상에게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불만을 일방적으로 참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부부사이의 갈등이 불화로 이어지게 된다. 본 면담에 참여한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경우로서 소개하였으며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북한 남성과 결혼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여성 대부분이 겪는 변화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물론 이러한 변화 가운데도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부들도 있었다. 이런 부부들은 특히 과거 북한이나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왔다는 것에 강한 동지의식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특히 북한에서의 어려웠던 시절동안 집안을 지탱시켜 나간 아내의 역할과 고생에 대해 남편이 고마워하고 심정적으로 보답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경우였다. 비록, 실제적인 노력은 아직도 여성이 더욱 많이 하더라도 남편의 태도전환과 노력은 부부관계 유지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남편이 변화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부부관계가 순조롭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제가 좀 맞추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처음 왔을 때보다는 남편이 변한 편이죠. 바뀔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결혼한 지 10년 되니깐 서로 잘 알기도 하고고 남편은 내가 북한 떠날 때 자기만 믿고 따라온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정

말 잘하고. 남편은 북한에서도 감옥 6개월
 갓었어요. 남한 방송 들었다고.... 그 때 친
 정 부모님이 감옥에 면회 가고 옥바라지
 해주고, 그러니 너무 고마워하고..... 사람
 이 우여곡절이나 풍파가 없으면 잘 안 되
 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의 어려움 이
 런 거는 북한에서 어려움에 비교도 못하
 죠.”[사례 2]

중혼(重婚)이나 동거와 연관된 문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
 었지만 탈북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맺었
 던 관계가 남한 생활에까지 연결되면서 부부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면담 참여자들은 보고하였다. 탈북 과정에서
 혼자가 된 여성들이 중국 등지에서 생활하면
 서 생존과 자기 보호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다지 원치 않는 남자와 동거 생활에 들어간
 경우로, 이 경우 애정에 기초하지 않은 관계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게 된다. 하지
 만 한번 맺었던 관계를 차마 끝내지 못하고
 몇 가지 정황 상 남한에서 들어와서도 그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생활하
 는 동안에는 생존을 위해서 덮어두고 넘어갔
 던 문제들이 남한생활에서 다시 불거져 나오
 면서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 즉,
 갈등의 원인을 이미 안고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경우로, 부부관계가 악순환의 고리를 물고 이
 어지게 된다.

“중국에서부터 같이 지내던 남녀간의 문
 제가 씨앗이 되어서 남한에 들어와요. 한
 탈북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는 중국에서
 피해 다니다 신변 보호를 받기 위하여 어
 쩔 수 없이 별로 마음에도 없이 한 탈북자

남자하고 동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남한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남한 정부에서
 조사하면서 그들을 정식 부부로 취급됐고..
 뭐. 그래서 그 여자는 전혀 원하지 않는 상
 황에서 그 남자와 계속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결혼의 후유증이라고 할까.....”[사례 3]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하여 부부가 함께 남한
 에 들어오지 못하고, 먼저 남한에 들어 온 남
 편이나 아내가 남한에서 다시 다른 사람과 혼
 인관계를 맺어서, 후에 북에서 결혼했던 아내
 나 남편이 남한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기기
 도 한다. 부부가 함께 탈북하지 못하여 서로의
 생사나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한에 먼
 저 입국한 사람들은 외로움이나 현실적 이유
 들로 빨리 결혼을 서두르게 되고 후에 북에
 있던 가족이 남한에 오게 되면 남한에서 이루
 었던 가족과 중혼관계가 된다. 이때 중혼관계
 가 된 탈북자들은 어떤 가족과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고 이에 따른 심리적
 갈등과 현실적 고통을 겪게 된다. 생사를 걸고
 넘어온 북의 가족들은 남한에서 결혼한 남편
 이나 아내에 대해 한편으로 이해하기도 하면
 서 원망과 실망, 분노를 느낀다. 또한 현실적
 으로 남한에서 이룬 가정을 이혼하고 재결합
 할지라도 이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해
 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어려움 상황으로 인해
 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몹시 곤란을 겪고 있는
 한 탈북 여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 온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거저 온
 사람들이 없어요. 애들은 비행기 타고 왔
 고, 중국에서 빠져 나올 때 주는 뒷돈도 있

고, 그러니 여기 와서 정착금을 타도 그 동안 진 빚 갚느라 많이 소진 됐죠. 거기다가 남편이 먼저 한국에 와서 결혼한 여자가 있어서, 내가 한국에 들어 온 이후에 남편이 그 여자와 이혼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내가 물어주어야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그렇게 돈을 쓰고 나니 내가 정착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사례 11]

남한 남성과의 결혼 생활 어려움

북한에서 결혼 경험이 있더라도, 북한의 남편이 탈북 할 가능성이 별로 없든지,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재결합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탈북 여성들은 남한에서 함께 의지하고 살아갈 배우자를 비교적 서둘러 찾게 된다고 하였다. 중국에서처럼 강제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남편을 만날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대체로 북한 남성보다 친절하고 자신을 존중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남한 남성에 대해 호감을 품게 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시작한 남한 남성과의 결혼이 반드시 만족스럽지는 않다. 남한 남성들이 북한 남성들보다 여성으로서 자신을 더 존중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문화적 차이나 생활방식의 차이는 갈등의 소재가 된다. 또한 이러한 차이로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남편이 “북한에서 와서 그렇다”, “더 못한 환경에서 왔다”는 식으로 무시하게 되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한국 남자와 같이 살아보니 남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해요.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부인을 존중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북한 여자들 착하고 순진하다 이런 면이 있어서 만났지만, 수준 차이가 있으니깐..... 우선 밥해주는 것부터 다르니깐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사례 8]

생활 방식의 차이로서 대표적으로 꼽는 것은 소비 수준의 차이였다. 면담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탈북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사람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검소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반면에 남한 사람들은 소비적이어서 결혼 생활에서 이러한 소비 수준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북한 남성이나 북한 여성들은 아끼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남한 여성이나 남한 남성들은 소비하고 사치하고 즐기며 살려고 해서 남북한 사람이 결혼해서 살면 이러한 생활 방식이나 소비생활의 차이가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한 남성이 이러한 차이로 북한 여성을 무시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고 한다.

“북한 여자들을 볼 때 나는 북한에서 못 살다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문화적 수준도 다르고..... 한국 남자들은 나가서 술 마시고 외식하고 영화보고 문화 생활 하는 것을 너무 좋아 하는 겁니다. 좀 사치스러운 거지요. 우리 북한에서는 좀 과도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북한 여자들은 안 그렇지요. 내 생활 범위 (수준)에서 딱 계산이 있어서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려고 하여 그것이 늘 결혼 생활에 있어 긴

장이 되지요.”[사례 8]

즉, 탈북 여성들은 기존 가정이 함께 남한으로 이주한 경우, 시간을 두고 재결합 경우, 남한 사회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난 경우에 각각의 다른 어려움을 갖고 해소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해나가고 있었다.

자녀 교육의 부담 및 남한 교육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자녀의 교육 문제는 자녀를 둔 탈북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걱정만 될 뿐 실제로는 교육체제나 현실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서 구체적인 지도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제일 처음 부딪히는 문제는 남한과는 교육체제나 내용이 다른 사회에서 교육받고 몇 년간의 학업 공백기간이 있는 자녀를 어떤 형태의 교육과정 혹은 몇 학년에 입학시켜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녀를 둔 탈북 여성들은 한결같이 어떠한 교육과정이 적합할지, 자신의 자녀가 남한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능력이 떨어져도 나이차이로 인해 학교에 적응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포래의 과정에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동급생들과 나이차이가 나더라도 학업 수준을 맞추기 위해 학년을 낮추어 입학해야 할지, 정규학교를 보내야할지 아니면 김정고시를 봐야 할지 등등은 모두 불확실한 정보 가운데 내려져야 하는 구체적인 결정 사항들이었다.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북한에서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전담해 주다시피 했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학교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고 한다. 아래 면담내용은 이러한 기대 때문에 자녀의 입시에서 큰 낭패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의 진술이다.

“나는 북한처럼 생각을 해버렸지. 북한은 애들은 학교에 넣으면 반 애들 40명을 선생님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든 뭐.. 그 애의 전망이나 심리적인 문제, 그 아이의 가정문제까지. 만약에 그 아이의 부모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갖다 기르는 정도까지 신경을 써준단 말야. 그런데 여기 교육과 북한 교육이 전혀 다른 걸 모르고.... 이제 학교 넣었으니 앞으로 전망이며 모든 걸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할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웬걸 탈북 학생들은 대학 특례 입학할 하는데 그게 월이 접수기간이었거든. 그런데 선생이 그걸 모르고 그 기간을 놓쳐 버린거라. 그때 우리 애는 바닷가에 놀러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나보다 더 선생을 찰떡같이 믿고 있어서.... 오히려 내가 야 너 학교에서 뭐 잘 되거나 물어보면 아니 엄마는 걱정 좀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 줄건데 왜 그렇게 간섭하냐고 그럴 정도였어. 그런데 그렇게 시기를 덜컥 놓쳐 버리고 1년을 보냈으니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던지....”[사례 5]

구체적인 정보도 없지만 부모 자체가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문제에 바빠서 자녀에게 신경을 쓸 여력도 부족하다. 북한에

서 보다 가족이 함께 모일 시간도 적어지는 편이어서 신경을 쓸려고 해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아는 정보가 적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럴 때 탈북 여성들은 자녀들의 어려움에 북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고 대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자녀들은 방황을 하게 된다고 한다.

“내가 상담을 받는 동안 생각해보니 우리 딸의 문제는 나 엄마의 문제였다는 걸 알았어요. 생활이 어려우니깐 애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남편은 병원에 있었고 나는 일을 해야했으니까. 나는 북한에서처럼 생각했어요. 북한은 학교만 보내면 선생님 다 알아서 해주니깐, 그냥 애도 학교 가서 해결할 걸로..... 나한테 뭘 물어보면 야 너 학교 가서 뭘 배웠냐,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렇게 욕을 한참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애가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폰 거 틀렸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서부터 애는 주눅이 들고, 그러면서 나한테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북한 (출신) 여자인 내가 봤을 때 인터넷에도 많은 정보가 있고, 전과만 하나 사서 우리처럼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원에 안 보냈었어요. 그래서 전과를 사서 인터넷 과외를 시켰는데, 애들 수준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애들 다 학원가서 배우고 오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렇게 수준을 앞서서 맞춰 가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애가 집에 와서 자기 학교 안 가면 안되나

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 다음날에도 학교를 가라고 막 때리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애가 가출을 해 버려...웬 그 순간에 내가 아차 이게 아니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 때야 감이 왔습니다.”(사례 9)

교육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자녀를 둔 탈북 여성들은 자신의 자녀 양육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 했다. 자녀는 남한사회의 영향을 받아 보다 자유롭고 통제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어머니는 이러한 변화된 행동이나 태도를 쉽게 수용하지 쉽지 않다고 한다. 자극적이고 유희적인 남한 사회 풍토나 환경으로 인해 자녀가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되지만 자신의 통제나 간섭은 북에서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다. 특히 이러한 불안감은 보다 강하게 키우는 북한의 훈육방법에 보다 긍정적인 가중치를 주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 면담에 참여한 탈북 여성 중에는 자녀들을 너무 의존적이고 과잉보호하며 사치스럽게 키우는 남한의 훈육방법도 좋지 않으며 자기 자녀만큼은 자립심 강하고 예의바른 북한식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경우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잘 수용하고 따르는 경우였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이든 변화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남한식, 북한식 아니면 어떤 다른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자녀를 둔 탈북 여성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였다.

부모 봉양 및 영, 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

연로한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탈북 가정의 경우 부모 봉양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 대체로 탈북 노인들은 북한에서의 고된 노동과 빈약한 영양섭취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빨리 쇠약해져 노화가 빨리 시작되며 더욱이 북한 및 탈북 과정에서 겪은 힘든 상황들 때문에 더욱 쇠약하여 남한에서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이나 사고방식을 습득해나가는 속도는 늦기 때문에 남한 사회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워 취업을 하기는 더욱 힘들다. 그래서 생계를 전적으로 지원금이나 가족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 되는데 국가로부터 받는 정기적인 지원이 끊기고 나면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마땅한 사회적 지지망도 없고 시간을 보낼 만한 소일거리도 마땅치 않은 노인들은 집에 있으면서 더욱더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자신들이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없는 자녀들, 특히 현실적으로 노인을 가까이에서 돌보아야 하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크게 다가오는 듯 했다. 한 탈북 여성은 이러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55세면 정부에서 연로보장을 받아요. 그 만큼 그 나이는 일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한국 젊은이들도 취업하기 힘든데, 늙은 사람들보고 무작정 취업을 하라니 그게....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잘라 버리니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경비직조차도 한국의 고위직 퇴직한 사람들이 하는 마당에... 어머니도 공공근로 하다가 1년 하고 짤렸어요.. TV보면 한국에서는 짐승도

방치되면 보호해주는데 북한 노인들을 그렇게 방치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는가?”
[사례 10]

영, 유아 자녀를 둔 탈북 여성들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면담 참여자 중에는 영, 유아를 데리고 단독 탈북하였거나 [사례 4], 탈북 과정, 남한 입국 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례 8]. 남편이나 친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영 유아 아동을 둔 탈북 여성들은 자녀 양육, 생업, 정착을 위한 교육이나 준비의 세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경제적으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지원금을 받는 기간을 자녀 양육에 보내게 되는데 정착을 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기술을 배우는 등 투자를 하는 처음 1-2년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데 시간을 들이다 보면 정착 정착 지원금이 떨어지고 직업을 얻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 할 시점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지경이 되고 있었다.

직업 훈련 및 직장생활의 어려움

직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자신이 종사하던 일과 일의 종류나 내용이 달라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다시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 일에 종사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편이며 나이 제한 때문에 자격을 갖추어도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떨어진다

고 하였다. 특히 나이 든 탈북 여성들은 이러한 회의를 떨치고 직업 훈련을 마치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였는데 직업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정착초기에는 언어도 익숙하지 않아서 직장에 취직하고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했다. 배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욕구를 표현하는 한 탈북 여성은 학원을 다니면서 느끼는 회의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세무 회계 학원에 가보니, 남한 사람들도 내 나이에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는 나도 북한에서 경제학 전공했고 회계일 하다 왔으니까 여기서도 하면 되겠지 했는데 실제로 보니 북한 회계하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르더라구. 북에서는 세금이란 게 없으니까 정말 단순하지. 여기는 온갖 세법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 나이 되어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다 한들 직장을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보장이 없으니 뭐... 답답하다.....” [사례 11]

면담에 참여자 중 많은 수가 취업을 위해서 학원 수강중이어서 면담 과정 중에 직업훈련 및 지원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곤 했다. 면담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취업 교육과 관련된 지원이 강화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곤 했는데, 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교육 과정 그 자체 뿐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찾고 교육받는 동안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착 초기에는 별 생각 없이 지원되는 분야의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 생각만큼 효과가 없는데 비해서 남한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진정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았을 때에는 스스로 벌어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안타깝다고 말하는 탈북 여성들도 있었다.

건강상의 문제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 여성 중에는 북한에서 과도한 육체노동, 미비한 의료현실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면담 참여자 중에도 탈북, 북송, 재탈북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혹은 탈북의 계기가 되었던 북한에서의 외상적 경험으로 인해 건강을 헤쳐 현재 여러 가지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뚜렷하게 아픈 곳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냥 몸이 안 좋은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건강상의 문제 중에서도 특히 만성질환은 남한에서 직업을 갖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었다. 만성질환은 단기간의 치료로 완치되지 않고 호전되기 위해서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탈북 여성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아도 큰 부담과 도전이 되는 직장생활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결과적으로 한 직장을 꾸준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특히 여성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만성질환이 있는 탈북 여성은 경제적, 현

실적인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통을 한 탈북 여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애들도 셋이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대학생이라 국가에서 등록금은 대주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러니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재활병원 다니고 치료해도 일어서기도 바쁘고 (힘들고) 앉기도 바쁘고 그런데... 이 사회에서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좋은데, 안 그러면 마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 보니 진단만 해도 100만원이고 수술을 해도 재발하기도 하고..... 또 다시 하는 일이 많고 저렇게 해서 내가 허리를 완전히 고친다면 일하고 할 수 있지만 치료를 해도 계속 돈 들어가고 하면..... 이 상태로 일 하기는 너무 힘들구요”[사례 4]

심리적인 어려움

탈북과정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충격의 후유증

면담에 참여한 여성 탈북자 중에는 남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뿐 아니라 북한이나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 즉, 심리적 외상에 해당하는 경험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기아나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이 사망한 경험, 공개처형이나 기아의 목격,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당한 경험, 강제 송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강간과 인권유린 경험 등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

준을 넘어서 심리적 외상을 가져오는 경험으로 인해 시간이 흘러도 심리적인 고통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15살 14살 되는 아이들을 공개 처형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경험했으니 어린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그 10살, 9살 된 아이들을 갑자기 공부 중단 딱 시키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야. “출서”하고..... (아이들을) 줄줄 끌고 나가서..... 백 미터 앞에 애들을 줄 세우고, (처형하려고 세워 둔) 자기 앞에 있는 애들을 썩서 뇌를 명중시켰는데, 그 뇌의 피와 물이 (공개 처형 구경하고 있던 아이의) 자기 옷에 탁 튀었다는 거다. 그걸 보고 나서는 구경한 애들이 그 이후로 잠을 못 잔다는 거야. 무슨 총소리가 여기 방송처럼 따랑 따랑 들리니..... 그거 말하려면 나 오늘밤 잘 못 자. 나는 그런 것 못 봐. 직장에서도 공개처형 있다고 나오라고 하면 나는 절대 못 갔지. 그것 보면 내가 심장이 멎어서 죽는데 내가 왜 가냐고..... 나가면 굶어 죽은 사람, 얼어죽은 사람, 아기 죽은 거, 공원 의자며 역전 대합실에서 뺨뺨 울던 것들 죽어 가는 것, 그런 거 목격하고 있는데, 완전히 사람 미칠 것 같더라고. 그러니 여기 와서 그런 거 안보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 여기 온 사람들 하나하나 다 상처가 있고, (그것을) 이해해 줘야 하지. 말로 다 표현을 못 해.....”[사례 5]

“꿈에서도 나는 중국이나 북한에 있을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

면 어떡하나 꿈꾸고 막 불안해하고...우리 집 사람들 데려오는 꿈도 꾸고 꿈에서도 북에 있기가 싫어서 중국으로 건너오려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꿈..." [사례 1]

함께 오지 못한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시도와 불안

가족 동반 탈북이 늘어나면서 북한이나 중국에 남겨 두고 온 가족들과 소식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쉽게 체념할 수 있었던 과거 보다 가족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더 심해지고 있었다. 가족들보다 먼저 입국한 탈북 여성들도 남은 가족을 데려오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한 참여자는 이렇게 진술하였다.

“처음엔, 안 모시고 왔을 때는 맨 날 생각만하면 미치겠고..... 어디 가서 굶어 죽지나 않을지 걱정을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아보고 다 데려왔어요. 내가 남한에 들어 온지 1년만에 아버지를 모셔온 건데, 그 전에는 중국에서 꿈에 아버지가 보이고, 우리 아버지 죽었을 거라고 맨 날 울고..... 아버지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사례 3]

남한 생활에서 느끼는 위축감과 신분 노출 문제

일반적인 탈북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면담에 참여했던 탈북 여성들도 때로 남한 사회에서 스스로 위축되는 면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여러모로 익숙하지 않은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들을 위축되게 만든다고 한다.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부정적이고 무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들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일 지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밝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북한 출신임이 밝혀졌을 때 무시당하거나 불이익, 차별 대우를 받을까봐 염려하고 있었다. 특히 면담에 참여했던 자녀를 둔 탈북 여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도 북한 출신임이 알려져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는데 소외를 당하거나 차별 대우를 받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까봐 매우 신경을 쓰인다고 하였다.

“학교 담임 선생님 이외에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 우리 아이는 지금 완전 남한 애인데..... 지금 학교에서 회장도 하고 축구부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주장 엄마로서 학교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 말투 때문에 북한에서 온 게 알려지게 되니..... 그걸 가장 조심하게 되죠. 애는 학교에서 잘살고 있는데 나 때문에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알려지지나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라.....” [사례 1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탈북 여성들의 남한 적응문제를 면담을 통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적응상의 어려움과 중요 쟁점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 탈북 여성들은 부부 형태에 따라

서로 상이한 부부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북한에서 결혼한 북남-북녀의 경우, 남한사회에서 부부간의 지위와 영향력의 변화로 인해 부부관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탈북가정을 연구한 여러 연구들과 일치하는 바였다(김엘리, 1999; 장혜경, 김영란, 2001). 특징적인 점은 남성의 변화였는데, 행동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는 가정은 비교적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때 남편의 변화는 과거 아내의 감사한 행동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서 시작된 북남-북녀 결합은 결합 자체가 생존을 위한 반강제적인 시작이었다는 점도 불화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방향의 부채의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갈등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성은 탈북과정에서 여성의 안전과 생존을 도와주었다는 점은 여성으로 하여금 빛진 자의 위치에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서 남성으로 하여금 힘든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남남-북녀의 결합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비수준의 차이와, 무서와 편견이라는 주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성영신 등(1993)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일치한다. 탈북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남남-북녀의 결합이 많아진 근래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점이 계속되는 갈등의 주제가 된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통일 후 더욱 많은 남북한 결합 가정의 중요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의 부재, 심리적 현실적 여건의 부족이 달라진 사회에서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탈북 여성의 자녀교육상의 고충은 일반적인 미국사회에 이민 간 한국 이민자 가정의 고민

과도 유사했으며(김광일, 1991),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의 적응갈등, 문화적 겹, 세대차 등의 내용은 탈북 가정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도 일치했다(김영수, 2000; 이기영, 성향숙, 2001; 안연진, 2002). 자녀들의 변화와 교육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감은 북한식의 교육 방식에 더욱 집착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였는데 남북한의 교육 방식의 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여부와 자녀가 수용정도가 갈등의 폭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여성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도 탈북여성들은 몸이 아픈 것,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한 경제능력의 부족과 우울감을 표현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경철(2004)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볼 때 흥미롭다. 김경철의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만성질환을 앓는 비율이 높았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주관적 건강상태도 더 나빴다. 또한 남자의 경우에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남한 거주기간, 종교, 만성질환, 우울증이었으나 여자에서는 우울증 한 변수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것은 여성의 경우 심리적 문제와 신체적이 문제가 보다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특징에 미루어 볼때, 향후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부 및 가족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 상담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나 민간단체의 탈북자에 대한 지원 형태를 볼 때 개별 탈북자에 대한 경제적 자립

과 관련된 상담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심리 정서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려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나 여러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응교육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가족이나 부부 문제에 접근하기에는 시간이나 자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이기영, 2001).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탈북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출신 지역, 결혼에 이르게 되는 동기와 배경, 결혼 경험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갈등의 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띤다. 부부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탈북 가정의 결혼 유형별, 가족 형태별 갈등의 내용과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 및 심리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증진, 문화변용 과정에서 생기는 가족관계 및 역할변화에 대한 교육과 대처,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모색하는 내용이나 남남 북녀의 결혼과 같이 결혼 유형별이나 갈등 문제별로 비슷한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모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편이나 아버지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부부, 가족 문제와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의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탈북 여성들의 자녀 교육을 돕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포함하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탈북 여성들은 자녀가 처한 교육적 상황 즉, 남한의 교육환경이

나 풍토, 남북한 교육 방식이나 교과목의 차이, 교육과정 및 수준 등의 객관적 정보가 지극히 부족하고 그만큼 자녀를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남한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한 안내, 교육 지원에 대한 안내, 남북한의 교육 환경 및 문화, 풍토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현실감 있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과 문화가 바뀐 사회에서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나 연하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적응상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며 자녀 교육과 관련된 고민과 의문점을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탈북 여성들이 북한 및 탈북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의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탈북 여성들의 심리적 증상은 신체적 증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 없이 진단되고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처치가 필요하며 심리적 서비스는 신체적 건강 증진과 함께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제공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에 진입하기 이전에 정착 교육기간부터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진단 및 선별과정이 실시되어야 하며 하나원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남한 정착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 연계과정이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문제와 같은 여성특유의 외상경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탈북 여성들의 취업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이 다양화, 구체화되어야 한다. 탈북 여성들은 대부분 취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취업을 통해서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직업훈련 지원은 탈북 여성들의 취업 발판이 되고 있으며 탈북 여성들은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나 세부적 기준을 조정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취업 지원은 직업 훈련이나 취업보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적성 파악, 직종의 선택, 직업 훈련 및 취업 준비, 취업, 직장 생활 적응, 취업 동기 고취와 만족도 향상이라는 세부 영역 별로 효과적인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각 단계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에서 직업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원 정책의 융통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한 탈북 여성들에게 취업이 용이한 직종의 발굴과 육아와 아동 양육이라는 여성 취업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진로의 모색이 요구된다.

다섯째, 탈북 여성에 대한 지원이 가족 형태별로 차별화 되어야 한다. 탈북 여성들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가족 구성원의 연령 및 형태별로 특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 혼자 자녀를 양육하거나, 연로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경우,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영유아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정착하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각의 경우에 맞게 지원이 차별화,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의 남한 사회 적응문제를 여성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관점에서 조망한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탈북 여성들이 모두 북한이나 중국에서 결혼 경험이 있는 여성들로 탈북여성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탈북 여성에 대한 연구가 결혼 여부, 북한에서의 계층, 연령대별로 세분화 될 필요가 있고 여성 탈북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프로그램 역시 그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응 문제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대처과정을 이해하고 남한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대처해나가는 탈북 여성들의 적응기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에 바탕을 근거하여 성공적인 적응기제를 복돋고 탈북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지원 정책 및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일 (1991). 해외동포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10, 119-153.
- 김경철 (2004). 남한 내 북한이탈 주민의 건강 상태 및 의료 이용 만족도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숙임 (1999).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욕구와 민간단체의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엘리 (1999). 북한이탈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 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 연구원.
- 김영수 (2000) 북한 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사회과학연구, 9, 102-117.
- 김태현, 노치영 (2003). 북한이탈 여성들의 삶 이야기: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 체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8), 1-17.
- 김현아, 전명남 (2003). MMPI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7(2), 129-160.
-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2000).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 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5), 137-152.
- 박미석, 이종남 (1999).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응 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 통일논총, 17, 3-73.
- 서영신, 서정희, 심진섭(1993). 남북한의 경제 심리 비교.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pp. 247-277). 서울:한국심리학회
- 안연진 (2002).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문화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기영, 성향숙 (2001).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7(11), 243-271.
- 이새롭 (2003). 북한 이탈 여성의 남한 사회 조기 정착 방안.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자료.
- 장혜경, 김영란 (2001). 이탈주민 가족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 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전우택 (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전우택, 윤덕룡 (2001). 북한 이탈주민 사회 적응 실태조사 보고서.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Bruce, N, Danforth, J, (2003). Health status and Canada's immigrant populat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7, 1981-1995.
- Hermansson, A, C., Timpka, T., & Thyberg, M. (2002). The mental health of war-wounded refugees; an 8-year follow-up.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2), 374-380.
- Hinton, W. L., Yung-Cheng J. C., & Nang, D. (1993). DSM-III-R disorders in Vietnamese refugees: prevalence and correlate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1, 113-122.

A Qualitative study of North Korea Women Defectors' adaptation to South Korean life

Young A Cho

Woo Taek Jeo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djustment issues of North Korea wome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Eleven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been married or was married at the time of study were interviewed on the issues of adjustment difficulties living in South Korea. To analyze the data from interview, the theme analysis method was used. Results indicated that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had difficulties of educating their children, supporting their parents and infants, receiving vocational training, working, and maintaining health. Also, they often had conflicts stemmed from changes in the gender role and status, bigamy and cohabitation, marriage with South Korean men. Besides, they seemed to suffer from the psychological pain as the results of trauma during the exile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entrance, inability to support their family members being left in North Korea, anxiety with the status revelation, and the sense of withdrawal in South Korea. Suggestions were discussed to support policies and programs for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key words : North Korea women defectors, adjustment